

코로나19 시대의 일상과 고민



이현택 기자



기자로써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사건사고나 국제 정치, 경제 전망 등에 대해 기사를 써왔지만, 정작 내 주변 일상이 크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주변도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나 자신과 우리 부서, 편집국, 내 가족, 친구 등의 삶도 꽤 많이 달라졌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우선 회식이 사라졌다. 지금도 단체 회식은 거의 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 시국에 회식을 했다가 감염됐다’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많이 앓거나 더 나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클 것이다.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과 진료 환경으로 사망률은 낮은 편이지만, 젊은이들도 일부는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으니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부모님이나 지인 등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지역전파로 확산할 수

도 있다는 위험도 있다.

요새는 이따금씩 절친한 선후배들이나 친구들과끼리 간단히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전처럼 소맥 잔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는 어렵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마주 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바로 비말(飛沫)이 튀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최소한의 방책으로 앞접시에 음식을 미리 나눠 담고, 구워 먹는 음식보다는 조리돼 나온 음식 위주로 먹는 식으로 조심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공공장소에서 내게 코로나19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늘 든다. 때로는 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한다면 아이와 아내와 어떻게 격리할지, 내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한다. 많은 부모 기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한 번은 해봤을 것 같다.

취재 과정이나 자기계발 등에서 온라인 도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내 일상을 바꿔놓은 대표적인 변화다. 태어나서 두 번 정도밖에 써보지 않았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지난 3개월

동안 30번 정도 쓴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수강하고 있던 수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처음 써보는 줌(Zoom)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해외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는 줌을 요긴하게 사용했다. 물론 줌을 쓰면서 서양 언론에서 줌이 중국에 서버가 있어 보안 우려가 있다고 다룬 기사가 생각났지만, 내 일상에서는 그 정도 비밀을 다룰 일은 없어 마음 편히 썼다.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외 저널리즘 연구기관의 좋은 세미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몇 안 되는 장점이다. 옥스퍼드대 로이터연구소가 대표적이다. 물론 짧은 영어실력으로 알아듣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지만, 회식이 없어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시간에 ‘글로벌 스토리의 팩트체크’ ‘코로나19 시대 뉴스 커버리지에 대한 양극화된 태도’ 같은 세미나를 듣고 있으면 지식까지는 몰라도 마음의 양식 정도는 쌓이는 것 같다. 예일대 굿소사이어티포럼에서도 언론과 관련된 좋은 세미나가 많았다. 국내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디어와 코로나 팬데믹 한미 합동 세미나’ 등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평



필자가 수업 자료 조사를 위해 친한 후배와 대화하는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줌(ZOOM)으로 진행했다.

소 존경하는 선배도 패널로 나와서 반가웠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각 언론사의 유튜브 라이브 창에 많은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제기하는 것 역시 이전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다. 물

론 그동안 유튜브에 둔감했던 내게만 달라 보이는 것일수도 있다. 그동안 유튜브나 동영상은 일부 언론사만 하는 것, 영상에 강점이 있는 곳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치부해왔던 언론인들에게는 더 분발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화상회의는 육아와 결합하면 고생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내게는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이 화상수업으로 전환한 것이 적지 않은 시련이 됐다. 화상수업의 접속 상태가 불량하면, 뒤쪽에 숨어 있던 나는 얼른 아이에게 뛰어가서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사라진다. 혹시 내 목소리가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어 더 조심한다. 아이가 수업할 페이지를 펼치지 못하거나, 물을 달라면서 아빠를 찾기도 하면 내가 더 긴장된다. 사실 지금 수업을 전혀 못 알아들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고, 진도가 미진하면 그 과정을 한 번 더 수강하면 그만인데 내가 너무 열을 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주 1회 화상 수업은 그래도 금방 지나간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화상 수업을 준비해주느라 고생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재택근무가 언론계에 보편화된 것 역시 한국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초년병 시절 사회부 기자로 길바닥에 앉아서 기사를 썼던 기억은 있지만, 며칠 넘게 하루 중 일 집에서 일해본 것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게다가 집에서 함께 있는 아이까지 있으니 이전 또 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주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것 같다. 아이는 왜 이렇게 오래 컴퓨터를 보고 있느냐며 빨리 같이 놀자고 재촉했고, 기사를 넘기고 나서 데스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기사 다 올렸으면 놀아 달라”는 아이를 설득하는 것도 큰일이였다. 그 대신 집 안에서 ‘퇴근’을 하

면 그림 그리기와 칼싸움, 보드게임, 레고 등 최대한 다양한 놀이 아이템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바쁘다는 이유로 다소 무신경했던 육아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경험과 고뇌(?)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재택근무를 할 때마다 아이는 내게 매달렸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여섯 살 아이라 궁금한 것도 많았다. “아빠 기사 크기가 왜 작아?” 같은 허를 찌르는 말을 할 때면 사실대로 “더 좋은 발제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나봐”라고 답하기도 어려웠다. 이따금씩 “몰라 인마!”라고 말하면서 옛날의 아빠를 떠올린다. 불행인지

필자의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학원 원격수업을 하는 모습



다행인지 아이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게 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명예기자도 됐다. 물론 아직은 한글이 서툴러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 아이는 가끔씩 신문의 헤드라인을 베껴서 적고는 한다. 아직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자도 그래도 따라 그린다. 미(美), 북(北), 중(中), 문(文), 청(靑), 김(金) 같은 한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가 따라 쓰기 어려운 단어는 내가 대신 적어준다. 하지만 나와 아내의 정치 성향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최대한 피해서 선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다.

허나 계속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 언론계의 상황을 보면 아이가 신문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마냥 반가워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해외는 물론 국내 언론들이 수익 악화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의 상당수를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

다. 당장 언제 언론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없다. 가끔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자녀에게는 기사를 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해왔지만, 나는 내 아이가 언론인은 꼭 되지는 못하더라도 언론을 잘 이해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옛날의 기자보다 오늘날의 기자가 힘들고, 오늘날의 기자보다 미래의 기자가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작정 기자라는 꿈을 제안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한다고 기자가 꼭 된다는 법도 없다.

코로나19는 언론에 큰 위기지만,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언론도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내게는 좋은 공부거리다. 최근 들어 부산·매일·강원일보가 이용자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뉴스추천 시스템, 동아일보가 100년 지면 PDF를 활용한 자서전적 신문 서비스로 구글 뉴스 인이셔티브 혁신 지원금 공모에 선정된 것은

타사 기자로서 내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두 팀의 서비스가 실제 론칭된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원격근무를 매개로 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내보내기도 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에서 굵직한 미디어 스타트업이 출현한 것 역시 눈에 띄는 포인트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아직까지 사내 벤처 등 변화가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는 우리 회사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 자신도 꾸준히 촉을 세우고 새로운 소식을 메모하지만, 아직까지 내게는 신박한 기획안은 없다.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다. 물론 이태원 클럽발 확산 등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방역 상황과 국민의 의식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다소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마음 편하게 아이와 영화관이 나 놀이공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을 이제는 쉽사리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안타까움도 있다. 빨리 백신이 나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의 도래에 코로나19까지 튀어나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버린 미디어 생태계에서, 나는 어떤 기자로 성장하고 미래의 언론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이전의 패러다임에 매몰돼 있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국 나이로 마흔 살을 몇 달 앞둔 요즘 계속 잠이 오지 않는 이유다. 고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말이다. 하릴없이 옛날 마인드(?)로 매일 한 시간 정도 영어 공부와 각종 툴(tool) 실습이나 시도해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일상이다. 일단 내일 출근하면 당장 아침 일찍 외신 스크린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